

총선 D-15

민주당 비례대표 확정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

순위	성명	직책
1	이성남	전 금융통화위원
2	박은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3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
4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5	전해숙	경북 약사회 선임감사
6	정국교	H&T 대표이사
7	전현희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
8	서종표	전 3군사령관
9	신낙균	전 문화관광부장관
10	최문순	전 MBC사장
11	김상희	전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2	김충조	최고위원
13	박선숙	전 청와대공보수석
14	안규백	당 조직위원장
15	김유정	현 민주당 국장
16	박홍수	전 농림부장관
17	김진애	KAIST 미래도시연구소 겸임 교수
18	김학태	전 법무부차관
19	유은혜	당 공동부대변인
20	신문식	당 사무부총장
21	한명희	당 미래여성리더십센터 소장
22	남기창	전 청와대 대학원장
23	이은지	경남도의원
24	정호준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 장학 회장
25	안주아	현 동대 교수
26	김윤주	전 군포시장
27	배영애	민주당 김천시지구당 위원장
28	김근식	경남대 교수
29	윤병길	강원도 약사회 회장
30	조재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연구교수
31	임기옥	제주도의회 제6·7대 도의원
32	최세규	(사)한국신진지식인협회 회장
33	서영교	전 청와대 춘추관장
34	김종현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35	고연호	우진무역개발주 대표이사
36	김남배	전국 개인택시연합회장
37	이예자	아시아장애인연대 대표
38	김을규	전국 빈민연합 정책실장
39	김현	당 상근부대변인
40	정용택	순천향대 겸임교수

전문성 거리 먼 '계파 챙기기' 비난 여론

'전국 정당화' 지향 영남권 배려 동교동계 몰락·정동영계 후퇴

통합민주당이 24일 비례대표 후보 40명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 대부분이 순환구, 박상천 공동대표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지분 챙기기는 비난이 일고 있다.

24일 순환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적 제약이 있고 당선 가능 범위를 현실적으로 판단하다 보니 훌륭한 분들을 모시기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비례대표) 현역 의원과 지역구에 신청했다 탈락한 분들을 모두 배제했다"고 말했다.

박상천 대표도 "구 민주계로서 비례대표 심사에 불만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나라당 독주를 견제하고 소외계층 보호의 큰 목표를 위해 참고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파 안배는 없다'는 당초의 약속과는 달리 이번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순환구, 박상천 대표의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비례대표 앞 순위 번호를 배정받은 외부 인사들은 대부분 손 대표가 직접 영입한 케이스로 알려졌다. 1번으로 낙점된 이성남(61) 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을 비롯해 최영희 전 국가청소년 위원장(3번),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4번), 전해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5번), 정국교 H&T 대표이사(6번), 의사 출신 변호사인 전현희 씨(7번), 4성 장군 출신의 서정표씨(8번) 등이 손 대표에 의해 추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서정표씨는 손 대표의 지지조직이었던 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출신이고 정국교 대표이사는 손 대표의 중소기업특보를 지내

는 등 손 대표 '사람들'로 분류된다. 박상천 대표도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상위 15번 내에 4명을 심었다. 그러나 비례대표 후보에 걸맞는 분야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기 사람 챙기기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신낙균 최고위원(9번), 김충조 최고위원(11번), 안규백 조직위원장(14번), 김유정 구 민주당 여성국장(15번) 등이다. 여기에 신문식 사무부총장도 20번에 턱걸이했다.

'전국 정당화'라는 기치에 따라 불모지역인 영남권에 대한 배려도 엿보인다. 송민순 전 장관(경남 진양)과 영남대 약학과를 졸업한 전해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경북 칠곡), 전현희 변호사(경북 구미), 농림부장관을 지낸 박홍수 최고위원(경남 남해) 등이 영남 출신이다. 시민사회 쪽에서는 지난해 범여권 통합 과정에서 미래창조연대에서 활동했던 전현희 변호사 정도가 포함됐다.

국민의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박선숙 총선기획단 부단장이 당료 묶음으로 분류된 것을 감안하면 동교동계는 사실상 '전멸'하다시피 했고 정동영계 인사들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특히 비례대표 후보 선정이 계파 챙기기로 흐르면서 장병완 전 기획예산처 장관과 김동신 전 국방부장관 등 전문성이 탁월한 인사들의 영입이 좌절된 점도 비판의 대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4일 오전 치열한 공천경쟁을 통과한 예비후보들이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합동참배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24일 오전 11시 광주시당 5층 강당에서 광주·전남지역 공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헌신식을 개최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한나라 비례대표 발표

한나라당이 24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50명 공천 결과, 당선 안정권(27~28번)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한나라당은 반면, 호남 인사 배려 약속을 또다시 어겼으며 그나마 '무늬만 호남' 인사에게 공천을 줬다. 청와대 및 내각 인선에 이어 또다시 호남 인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또다시 이 대통령에 치우친 공천=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들로 우선 비례 3번에 내정된 배은희 리젠바이오텍 대표와 비례 18번을 받은 이춘식 전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들 수 있다.

또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이었던 이달근 서울대 교수와 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조인했던 나성린 한양대 교수도 각각 10번과 12번에 배정됐다.

이에 반해 박근혜 전 대표 측 인사로는 경선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이정현(22번) 전 부대변인이 유일하게 당선 가능권에 포함됐다.

당선 안정권에 親李세력 대거 발탁 임두성·강성천·김소남 등 호남몫 배정

◇무늬만 호남 비판=한나라당의 호남 배려는 비례대표 공천에서도 역시 없었다. 지역정서를 전혀 모르는 인사들을 배정하고 '호남 배려'라고 강변했다.

이에 한나라당 전남지역 총선 예비후보 12명은 이날 "지역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던 사람을 안정권에 배제하고 그나마 호남인사 30% 약속도 지키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비례대표 선정과정에서 호남지역을 배려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퇴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중앙당을 압박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한나라당이 이날 발표한 명단 중 당선 안정권의 호남 출신은 2번 임두성 한빛복지협회 회장,

4번 강성천 한국노총 부위원장, 6번 김장수 전 국방장관, 7번 김소남 전국 호남항우회 여성회장, 22번 이정현 전 당 부대변인, 28번 박재순 전남도당 위원장 등이다.

이 중 임 회장은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강 부위원장은 한국노총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각각 발탁됐다. 또 김 전 장관은 국방·안보 전문가로, 김 회장은 여성 몫으로 포진한 케이스다. 결국, 이 전 부대변인과 박 위원장이 호남을 배려한 인선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이 전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표의 최측근이라서 발탁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 공천파동 계파간 권력다툼 비화

4·9 총선 후보 등록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강재섭 대표가 총선 불출마 카드로 당내 공천 파동의 수습에 나섰지만 한나라당의 내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이재오 의원의 거취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공천 파동이 당내 계파간 권력다툼으로 비화하고 있어 사태 전개에 따라서는 당내 권력지형에도 변화를 초래할 조짐이다.

일단 이재오 의원은 금명간 총선 불출마 여부 등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중대 결단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남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회동, 공천 파동 등 당내 현안 수습책을 논의한 이 의원은 이날 서

울 근교에서 머물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숙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이 생각을 정리한 후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상득 부의장 불출마'를 비롯, 어떠한 전제 조건도 달지 않고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백의종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던 이 의원이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전당대회에서의 당권 구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 출마 의지를 고수하고 있는 이상득 부의장의 거취에도 영향을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친이(親李·친 이명박) 계열 소장파로부터 불출마 압력을 받

고 있는 이상득 부의장은 "출마를 막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포항 지역구에 머물고 있는 이상득 부의장은 "총선 출마는 포항시민의 뜻"이라며 총선 완주 의사를 거듭 밝혔다.

한편 전남 총선 불출마 입장을 밝힌 강재섭 대표는 이날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 부의장 불출마 논란과 관련, "공천심사위에서 이미 의결을 하고 최고위에서 잘됐든 못됐든 의결해서 본인이 선거운동을 하고 내일 본인이 등록을 하는데 문제 제기가 너무 늦었다"면서 "본인이 판단할 문제로, 본인이 슬기롭게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탈모

치료가 하루 늦으면 탈모는 10년 앞서갑니다

초전성모의원 10개년간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탈모에 대한 최고의 처방을 확립했습니다

- 탈모·고환산·염기나 많은 것을 고령 화됩니다!
- 그리고 비록 미국 내셔널 박사나 같은 저명한 노벨상을 받게 되셨으나!
- 적어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 고령을 피할 것입니다.
- 아쉽게도 고령을 피하려고 처방과 자신감을 잃어버려 쓰러졌습니다.
- 전국에서 찾아오는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 장년층 환자께서는 확실한 치료후 2~3개월이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 1~2개월에 맞는 처방전으로 10대에서 30대에 이르기까지.
- 신장을 사후는 누구나 처방이 가능합니다.

초전성모의원 문의: 010-2067-2690